



화산은 무섭지만은 않아요. 탐험 아소 지오파크! 아소의 지오파크를 탐험!!

아소의 어린이들의 연구도 소개합니다!

아소 5악

칼데라의 중심에 있는 많은 화산들을, 타이칸봉에서 촬영하면 석가모니가 누워 자고 있는 모습 W처럼 반상 W처럼 보입니다. 왼쪽의 네코다케(1423m)와 얼굴, 타카다케(1592m)와 가슴부분이며, 나카다케(1523m)부분은 배꼽부분, 우측의 에보시타케(1337m)와 카치마타케(1321m)와 무릎 부분입니다.

G-01 아소 주다테 분화구

아소에 오면, 역시 이곳! 아소화산에서 유일하게, 분화가 가능성이 높은 산입니다. 주다테 산정상의 근처에 있는 분화구(마그마의 출구)에는 에메랄드 빛의 녹색온천이 가득 모여있다. (2011년 2월 현재) 실은 이 온천은 독성이 있는 온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색깔이 예쁩니다.

G-01 주다테 분화구의 화산 가스

주다테 분화구에서는, 대량의 화산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의 농도에 따라서는, 분화구의 건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자는 가스 마스크를 착용 후 조사하고 있으며.

G-02 코메즈카

쿠마모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코메즈카. 여기에도 실은 대단한 화산입니다. 3300년 전 분화하여, 수코리아라고 하는 경석이 쌓여 이뤄진 산입니다.

G-03 카미코메즈카

등산길 근처의 빨간 벽, 유심히 보면 빨간 스코리아(경석)이 겹쳐 쌓여있다. 코메즈카를 정면으로 자리면 이런 느낌일까요? 잘 관찰하면 지층이 분화했을 때의 마그마가 통과한 길도 보여요!

G-04 쿠사센리 전망대

동쪽으로 수증기를 내뿜는 주다테, 남남 동쪽에는 쿠사센리와 에보시타케, 서쪽에는 타테노의 산골짜기와 그 앞에는 쿠마모토 시가 보인다. 지구의 경장함도 알 수 있고, 이곳에서의 저녁놀은 최고입니다!

G-05 쿠사센리

직경 7.2km의 원형 초원 쿠사센리. 오랜 옛날 분화구였던 곳이다. 실제로, 땅속에서는 아소의 마그마가 조용히 잠자고 있다.

L-01 유수지 (우치노마키)

큰비가 화산재 같은 토사와 섞여서 쿠로카와에 흘러 들어 일어난 7.2 수해. 강의 범람은, 단숨에 늘어난 물을 저장하는 유수지가 강가에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도물이 안 될 듯한 나대지도, 비상시에는 굉장한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미야지 초등학교 6학년생 (2006)

G-06 타이칸봉

메이지, 타이쇼, 쇼와 시절에 활약한 유명 저널리스트 토쿠모 미소호가 명명자입니다. 이곳에 서있으면 묵의식적으로 "굉장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위쪽의 열반상은 타이칸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G-07 후타에노 고개

현재도 지진을 일으키는 후타에노고개 단층이 있습니다. 단층이 만든 골짜기 지형을 이용하여, 에도시대에는 산킨코우타이의 길을 만들었다. 타테노의 초등학생은, 단층활동이 지속된다면, 몇 만년 후에는 골짜기가 깊어져, 길이 흐르고, 제2의타테노의 골짜기 (G-08침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테노 초등학교 5.6학년생 (2007)

G-08 立野の谷

カルデラの壁, 唯一の切れ目= 割れ目. 割れ目は立野断層とも呼ばれる. 伝説では阿蘇の神様がけ付けてきた, と言われているけど, 立野小学生は, 断層の地震と白川(黒川)が地面を削る力で谷ができた, と考えている.

타테노 초등학교 5.6학년생 (2006)

G-09 마츠보리 바람

타테노에 부는 국지풍 마츠보리의 어린 마츠보리는, 바람이 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런 바람이 없는 날도, 타테노만은 무엇이든 바람이 버린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까요? 그 이유를 타테노초등학교가 조사했습니다.

타테노 초등학교 5.6학년생 (2010)

G-10 스카루가 폭포

쿠로카와에 있는 폭포. 옛날 사슴이 매달렸다가 구출된 적이 있어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있음. 연간 약 20cm의 지표면이 침식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의 힘은 대단해요.

타테노 초등학교 5.6학년생 (2008)

G-11 초우요 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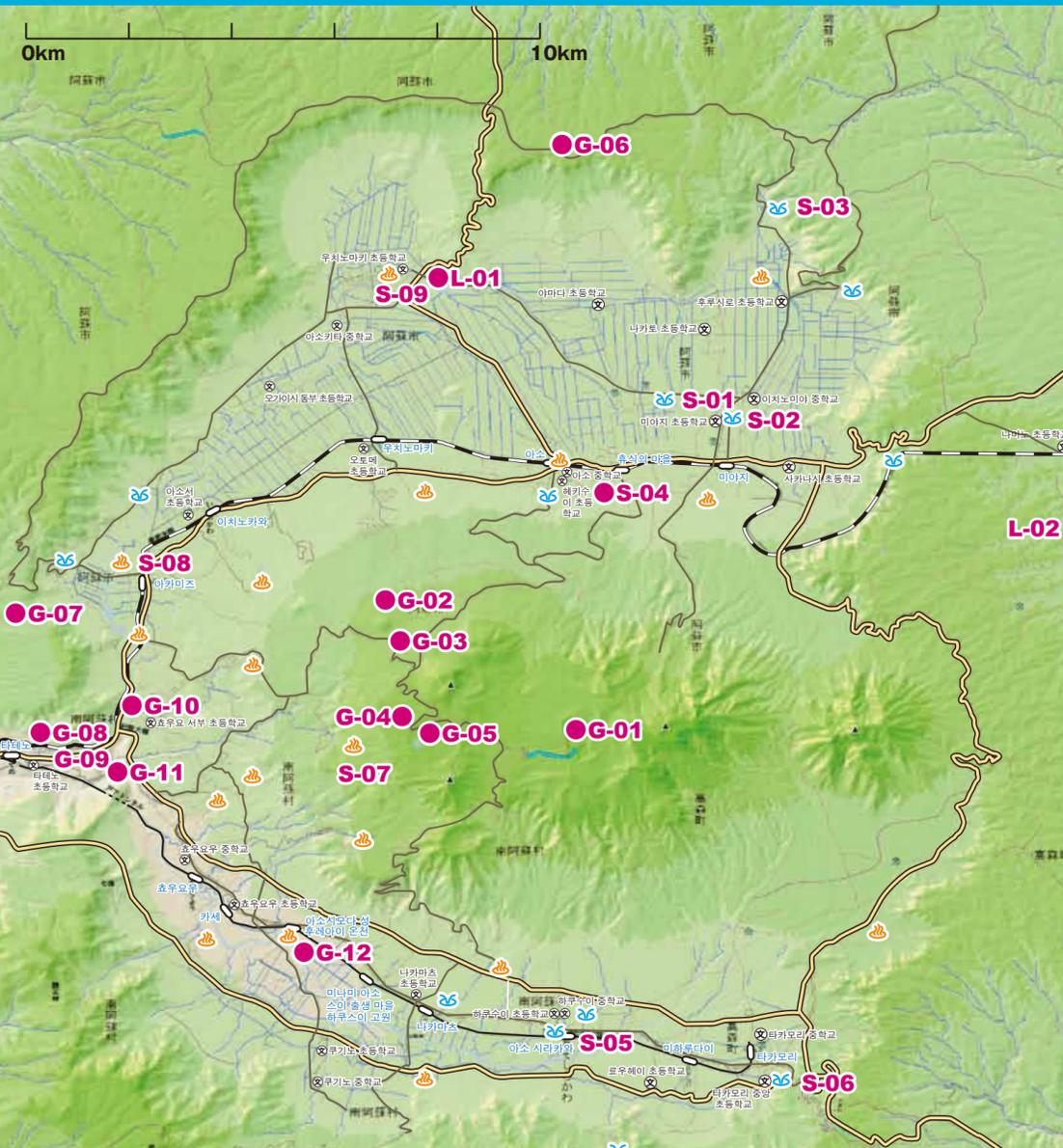
칼데라의 밑바닥, 북쪽을 흐르는 쿠로카와와 남쪽을 흐르는 시라카와의 합류점. 아소의 용암(타테노용암, 7만년 전)을 견학할 수 있어요. 용암에서 거진 주상절리 (용암기둥의 군열)를 꼭 보세요!

초우요 서부 초등학교 6학년생 (2009)

G-12 시라카와 주변

아소 칼데라가 호수였던 증거는? 쿠기노봉이 시라카와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쿠기노봉에서는 일사귀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초우요 서부 초등학교 6학년생 (2009)



지하수의 구조

분화했을 때의 분출물 (예를 들면 용암이나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화산의 형태, 잘 보면 균열, 용암의 구멍, 지층의 사이 등, 틈새가 많이 있다. 빗물은 틈새를 통해서 지하에 스며든다. 스며든 상태의 제일 안쪽 빗물은 정화되어, 깨끗한 물이 된다. 그 물은, 분출물의 미세한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 스며든 물은 드디어 고여있는 물이 된다. 그 물이 지하수, 지상으로 분출한 지하수를 용수(유수)이라고 부른다.

지오파크

지구(지오)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지구와 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장소.

S-09 우치노마키 온천

나츠메소우세키 등, 수많은 유명인이 숙하여 알려진 온천. 분출되는 온천물은 40도 정도로, 목욕하기에 적당한 온천입니다. 이 온천은, 마그마가 아니고 지하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돌, 화강암에 데워진 지하수가 분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S-08 아카미즈 온천

철분이 가득한 아카미즈 온천. 분출될 때는, 연한 녹색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녹색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아소 서부 초등학교는, 이런 성분은 온천에서 족욕 후 식혀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수돗물로 식힐 때 보다 온기가 오래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소 서부 초등학교 4학년생 (2008)

S-07 지옥 타루타마 온천

수많은 아소의 온천 중에서, 화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몇 안 되는 온천 중의 하나. 가까운 곳에 진흙 화산으로 유명한 오시오카 지구. 에도시대에 분화했던(유노타니 대사건) 유노타니 지구가 있어요.

미야지 초등학교 6학년생 (2006)

S-06 타카모리 용수터널

칼데라의 벽에 터널 공학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많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터널공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터널 안은 물수가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미야지 초등학교 6학년생 (2006)

S-05 시라카와 수원

일본 유명 수원지 시라카와 수원지. 산에 쌓인 토사(화산재 등 산산지 퇴적물)의 틈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고 있다.

미야지 초등학교 6학년생 (2006)

국토지리원의 와지도를 사용하여, 카시미르로 제작하였습니다.